



With You

2016 Autumn

통권 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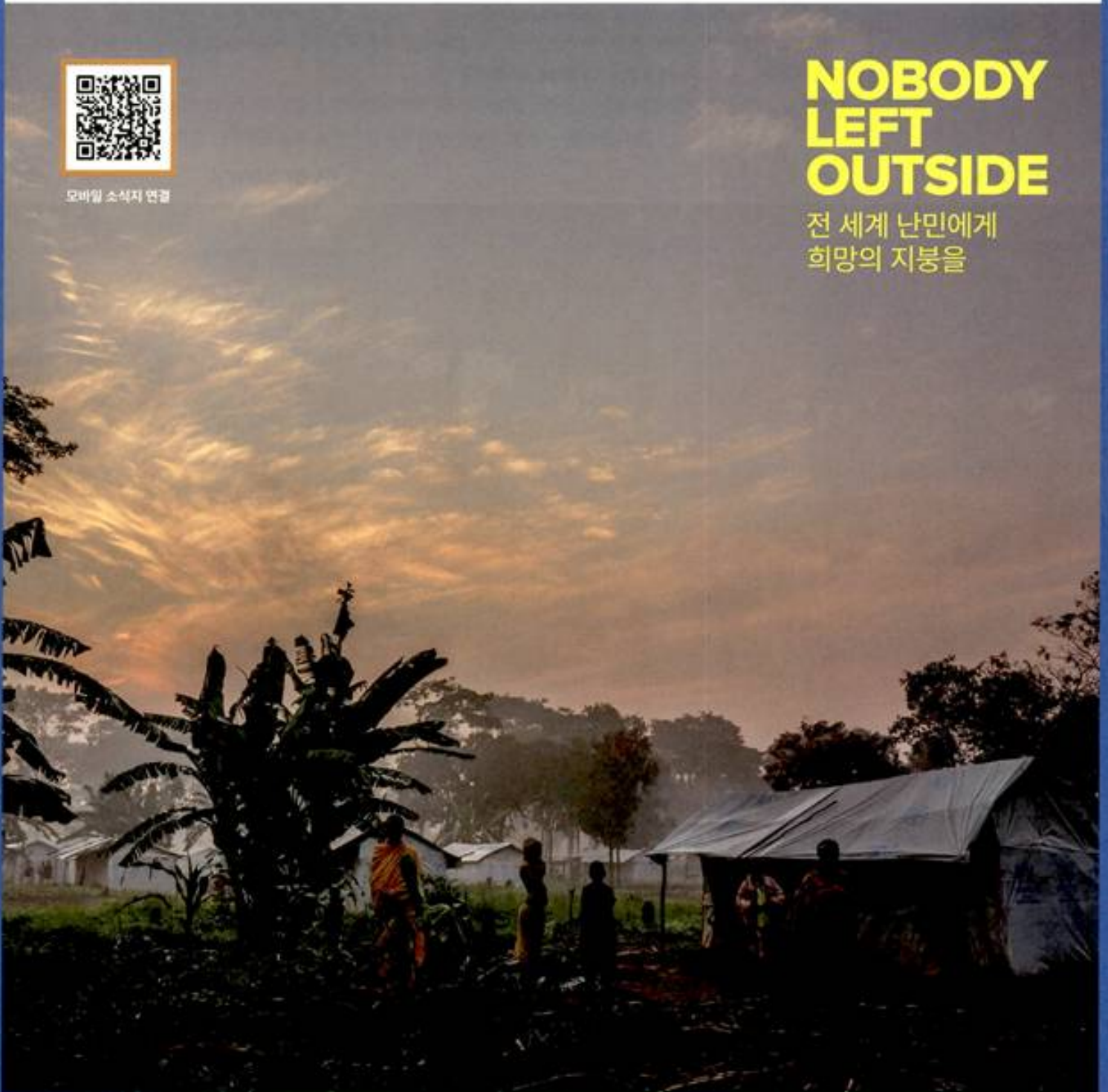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모바일 소식지 연결

**NOBODY
LEFT
OUTSIDE**

전 세계 난민에게
희망의 지붕을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월계관 형상은 UNHCR이 유엔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UN기구임을

A laurel wreath symbolizes UNHCR is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사람 형상은 난민을 비롯한 UNHCR의 모든 보호대상자를

The person symbolizes persons of concern to UNHCR.



두 손 형상은 UNHCR의 난민보호 노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Sheltering hands symbolizes UNHCR's commitment and efforts to protect refugees and persons of concern.

Contents



난민보호 캠페인

세계 인도주의의 날·세계 평화의 날 캠페인 03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① 쉼터 캠페인 04

② 리우 올림픽 난민 대표팀 하이라이트 10

③ 긴급구호 14



한국대표부 소식

기관 소식 + 후원 소식 12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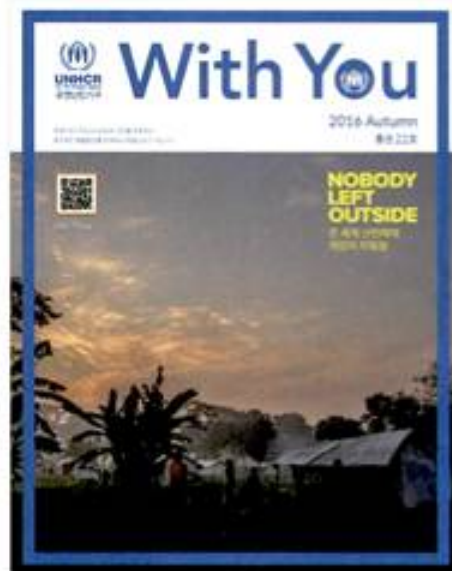
후원 약정서 15



함께 배우는 난민 이야기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난민 쉼터 16

Cover Story



표지 사진은 탄자니아 킴보디(Kibondo) 지역에 위치한 연무타(Nduta) 난민촌의 모습입니다. 2015년 5월 발생한 폭력 사태를 피해 대탈주해 온, 이제는 수천 명이 이 난민촌에 들어왔고, 2016년 현재 5만 명 이상의 부룬디 난민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진 난민촌의 모습처럼, 이들의 고국에도 어서 빨리 평화와 찾아와 안전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 UNHCR / Sebastian Rich

발행인 나비드 루세인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6년 10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슬로워크

세계 인도주의의 날·세계 평화의 날 캠페인



'유엔난민기구가
일하는 6,530만 가지
이유' 영상 보기



블랙 아이드 피스
'Where is the Love'
영상 보기

매년 8월 19일은 전 세계 분쟁과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맞서 일하는 모든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며, 매년 9월 21일은 총성이 없는 날로도 불리는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특히 이번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유명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Black Eyed Peas)는 자신들의 히트곡인 〈Where is the Love〉를 리메이크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6,530만 난민을 마주한 오늘, 더 많은 사람이 평화와 인도주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날까지 전 세계 127개국에서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활동은 계속됩니다.



200만 난민 지원 쉼터 캠페인

NOBODY LEFT OUTSIDE

전 세계 난민에게 희망의 지붕을



쉼터의 종류 — 난민들은 어떤 쉼터에서 살아갈까?

1. 긴급구호 쉼터



총탄이 머리 위를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난민들은 빈손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 상황으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포함해 난민들의 긴급 필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자국 내 좀 더 안전한 지역, 혹은 국경 근처 주변국에서 인도주의적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국 정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며, 여러 차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더 큰 위험과 불안정을 막기 위해 난민촌을 지어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긴급구호 쉼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난민촌은 수도와 위생 시설 등 주요 서비스가 여러 가구에 공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주로 블록 단위로 구성됩니다. 또한, 물품 배급 및 보관 장소를 포함해 각종 시설과 공간들은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긴급구호 쉼터



물대와 천으로 이루어진 이 긴급구호 텐트는 5인 가족에게 적합한 크기이며, 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과 상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긴급구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볍고 조립과 이동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며,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프와 못으로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합니다. 대가족의 경우, 대형 알개를 이용하여 두 개의 텐트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쉼터 수명	1년
기후	5~40°C 기후에서 가장 효과적
재질	폴리에스터/면 코팅물, 방수천 바닥재
면적	길이 4m, 높이 2.2m, 입구 너비 1.4m
특징	주위를 막아주는 방한 키트와 함께 사용 가능

2. 장기 거주 쉼터



강제 이주 상황은 몇 주 만에 끝나지 않고 수년, 때로는 수십 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들이 고향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평균 기간은 17년입니다. 따라서 유엔난민기구는 이처럼 오랜 기간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난민들을 위해 보다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19개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환경, 지리적 풍토와 기후, 사회 문화적 요소, 건축 자재 조달 및 기술력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쉼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가볍고 기후 변화에 잘 견디며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강, 존엄성, 안전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도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이면서, 현지 일자리 창출 및 직업 훈련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분쟁과 폭력,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6년간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비롯해, 새롭게 발생하거나 장기화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그 주요 원인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6,53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강제로 피난길에 올랐고, 그중 2,000만 명은 타국에서 난민으로, 나머지는 자국 내에서 국내실향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조 상황에 처한 난민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귀환민에 이르기까지 강제 이주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거주 쉼터 ①



이 목재 쉼터는 난민 가족들을 벽, 바람, 햇빛으로부터 더 강력한 보호하며,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보다 견고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과 지붕은 유엔난민기구 방수천을 덮어 사용할 수 있으며, 벽은 짚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쉼터 공간은 12m²(4x3m)이며 최소 높이는 1.7m입니다.

쉼터 수명	2-3년
기후	10-30°C 기후에서 효과적
재질	목재와 현지 재료 혼합, 방수천 지붕
면적	길이 5m, 높이 4m, 너비 3m
특징	건설 필요 인원 3명
비용	미화 229달러

장기거주 쉼터 ②



유엔난민기구는 쉼터를 보수하는 노력도 기울입니다. 기존의 긴급 쉼터를 친환 벽돌을 받고 아연도금 철판으로 지붕을 덮은 쉼터로 개선하며, 난민들이 더욱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높고 견고한 이 건축구조는 난민 가족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쉼터 수명	2-3년
기후	5-40°C 기후에서 효과적
재질	친환 벽돌, 지붕보, 아연판
면적	크기가 다양함
비용	미화 142달러

장기거주 쉼터 ③



더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난민 가족들에게는 이처럼 더욱 내구성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쉼터가 가족들에게 안전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 L자 모양의 쉼터는 방 2개, 화장실 1개,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들에게 집에 있다는 느낌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기분을 다시금 갖게 해줍니다.

쉼터 수명	10년
기후	모든 기후에서 사용 가능
재질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높이	3.3m
특징	건설 필요 인원 5명
비용	미화 328달러

다양한 유엔난민기구 쉼터



긴급구호 쉼터

임시/장기 거주 쉼터

반영구적 쉼터



"이 조립식 쉼터를 통해
더 넓고 집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 10월 말 홍수가 났을 때에도
이 쉼터는 끄떡없었어요."
이라크 국내살민 하미드

IS의 공격을 피해 2년 전 고향인 이라크 팔루자(Faluja)를 떠난 55세 하미드(Hamid)는 현재는 바그다드 알 자미야(Al Jamia) 난민촌에서 이혼 아내와 여섯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 © UNHCR / Sebastian Rich

3. 대안형 쉼터



유엔난민기구의 쉼터는 최근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혁신적이면서도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케아 재단과 함께 개발한 '난민 하우스링 유닛(Refugee Housing Unit)' 대안형 쉼터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고 창문창치가 달린 문을 갖춘 방 2개짜리 조립식 주거지입니다. 기존의 쉼터보다 더 안전하고 개선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며, 특히 쉼터를 지을만한 현지 자료가 부족한 지역에서 장기간 살아가는 난민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이 쉼터는 지난 5월부터 지부티,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라크 등의 지역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4년 전 고향인 시리아 올조를 떠나 피난길에 오른 라파(Rafaa)는 현재 레바논 시라판드(Sarafand) 지역 바나나밭 거운에 있는 쉼터에서 남편과 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쉼터 키트와 건물 벽재를 보강할 수 있는 재료를 지원 받아서 남편의 열혈 없이 프레이버시를 지킴에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 UNHCR / Sebastian Rich

4. 도시 지역 난민 주거 지원



하지만 난민들이 앞에서 설명한 형태의 쉼터에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난민의 70%는 난민촌이나 난민 정착 지역이 아닌, 도시에서 현지 주민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낙후된 공동 주거시설이나 센터, 버려진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상시 강제 퇴거, 차별과 착취의 위험에 놓여있으며, 수도와 위생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여성 혹은 아동 가장 가구,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 난민들에게 현금과 쉼터 키트, 주거 관련 법률 중개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난민들이 존엄성을 갖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쉼터의 역할 — 쉼터는 왜 중요할까?



“쉼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안전과 위안을 의미하죠.”

— 시리아 난민 아부

시리아 난민 50세 아부(Abu)가 그의 두 딸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고향 시리아를 떠나 레바논으로 피난을 온 아부의 대가족은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개조된 아파트를 공급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 UNHCR / Sebastian Rich

+ 물리적 안전과 신체 건강 보호

쉼터는 난민을 물리적으로 보호하여 성폭을 구하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합니다. 적절한 쉼터가 제공되지 않고 야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여러 질병과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화되어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등 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쉼터는 여성과 여아가 겪는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피난 여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과 길에서 자야 했는데 정말 추웠어요. 음식을 먹고 쉬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 멕시코 난민 아다(Ada)

“피난하는 내내 딸아이와 제가 절도, 강간, 폭은 납치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이 쉼터에 도착해서 안전하게 지내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에요.”

— 멕시코 난민 미르나(Mirna)



정신적 안정과 존엄성, 프라이버시 제공

쉼터는 신체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 아니라, 심적 안정을 느끼게 하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두고 피난길에 오르는 경험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데, 쉼터가 없다면 이러한 트라우마가 불안 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쉼터는 가족들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평범한 삶의 일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는 중요해요. 온전한 한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 부룬디 난민 재클린(Jacqueline)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밥을 먹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지속하는 거예요.”

— 시리아 난민 하예(Hayel)



과거와 미래를 잇는 삶의 연결 고리

하나의 고정된 공간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우선, 고정된 위치의 안전한 공간은 예전의 삶에서 가져온 소유물을 보관할 수 있게 하며, 현재의 삶을 지속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취침, 요리, 빨래 등의 하루 일과를 가능하게 하고, 현재의 일차적인 필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작업, 미래에 대한 계획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는 기초가 됩니다.

“쉼터를 통해 하나의 고정된 주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 부룬디 난민 엠마누엘(Emmanuel)

“저에게 우선순위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 시리아 난민 라파(Rafaa)



유엔난민기구 쉼터 캠페인



유엔난민기구 직원인 하리스(Harris)가 이라크 바그다드 중산에 위치한 알 자미야(Al Jamea) 난민촌에서 난민 아이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년 4월 문을 연 알 자미야 난민촌에는 이라크 계단과 함께 개발한 난민 하우스 및 임시 쉼터가 2015년 9월 공급되었다. © UNHCR / Sebastian Ruck

지난 2016년 5월,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Nobody Left Outside — 전 세계 난민에게 희망의 지붕을'이라는 캐치 아래, 2018년까지 난민 200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쉼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국제적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텐트를 확보하고 있는 인도주의 단체로서 매년 7만 개의 텐트, 200만 개의 방수천을 구입하고 있으며, 긴급구호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두바이, 코펜하겐, 더반 등에 위치한 긴급구호 물류 창고에 텐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전체 예산의 97%는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2016년 글로벌 쉼터 캠페인을 위해 필요한 기금은 미화 7억2,400만 달러이며, 현재,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 난민들에게 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5억 달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수백만 명의 난민들에게 적절한 쉼터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홈리스로 전락하거나 위태로운 거주 공간에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이들의 생명과 존엄, 미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분쟁, 폭력, 박해로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난민 가족이 안전하고 적합한 거주 환경 속에서 삶을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지붕을 만들어주세요!

“쉼터는 난민들이
생존하고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주춧돌로서
협상 불가한 인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한
오늘날, 어느 한 명의 난민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쉼터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다 — 부룬디 난민 재클린의 이야기



재클린 영상보기



재클린이 아들 알리켈리, 다니와 함께 유엔난민기구로부터 공급받은 쉼터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 UNHCR / Sebastian Rich

스물다섯 살 재클린(Jacqueline)은 고국 부룬디에서의 폭력 사태를 피해 임신한 몸을 이끌고 남편, 아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정부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집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룬디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있다가 발견되면 처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거든요.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당시에 임신 중이었고 피난길이 험난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탄자니아에 도착한 이후 그녀의 가족은 4개월을 임시 거처에서 지냈고, 그 후 엔두타(Nduta) 난민촌의 유엔난민기구 가족 쉼터를 공급받았습니다. 현재 남편 조셉(Joseph)과 일곱 살 알리켈리(Alikeli), 5개월 된 다니(Dani)와 함께 목재와 방수천으로 만들어진 이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재클린은, 자신들의 쉼터를 최고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클린이 아들 다니와 함께 텐트 안에서 쉬고 있다.
© UNHCR / Sebastian Rich

“남편이 우리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공간과 부엌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집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이곳에서는 물건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더 안전함을 느껴요. 프라이버시도 중요한데, 병해 요소도 적고 한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진흙 벽돌로 지어지고 시멘트 바닥과 파행 지붕이 있는 쉼터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예요. 벌레나 나뭇잎, 빗물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닫이 문도 있었으면 해요. 지금도 이 가족 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긴 하지만,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도 일거리를 더 많이 찾아서 제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재클린과 같은 난민 가족들이 생명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리우 올림픽이 그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시합에 참가한 난민 대표팀 선수 10명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지구촌 화합과 우정의 메시지를, 전 세계 난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많은 챔피언들과 함께
결승선까지 경쟁했기 때문에
승패와 상관없이
경기 결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 800m 육상 선수 로즈 나티케 로코니엔
(Rose Nathike Lokonyen)

“앞으로
멈추지 않고 훈련하여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 유도 선수 올란데 마비카(Yolande Mabika)

올림픽을 통해 만난 그리운 어머니

이번 올림픽 출전으로 난민 대표팀 선수 중 이예크 푸어 비엘(Yiech Pur Biel)은 어머니와 재회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리우 올림픽촌 숙소에서 자고 있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전화 한 통에 잠을 깰 겁니다. 전화를 받자 그가 12년간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어머니였어요. 전 그동안 어머니의 생사를 알 수 없었고 어머니도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남수단 출신인 비엘은 2005년 전쟁을 피해 피난하던 중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가족 없이 홀로 케냐 난민촌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지금, 비엘의 고향 사람 중 한 명이 그가 난민 대표팀으로 리우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비엘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착한 심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시작에 불과해요. 훌륭한 일을 해내려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지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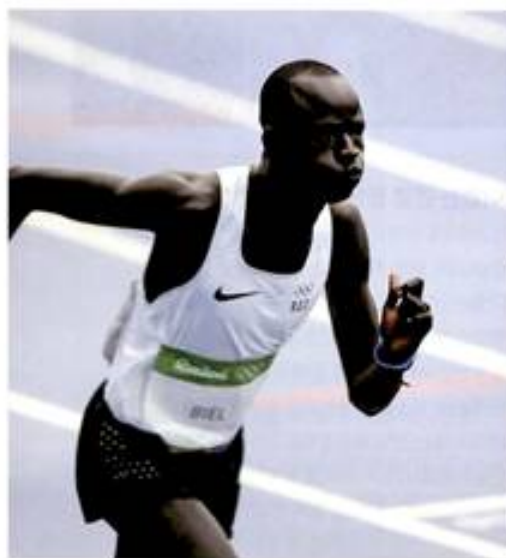
패럴림픽에서도 이어지는 난민들의 도전

리우 올림픽의 열기를 이어받아 지난 9월 8일부터 19일까지는 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도 난민 두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리우 올림픽 성화 봉송자이기도 했던 시리아 출신 이브라힘 알 후세인(Ibrahim Al-Hussein)과 이란 출신 샤라드 나사지푸르(Shahrad Nasaipour) 두 명의 난민 선수가 각각 수영과 원반던지기 종목에 출전하여, 난민으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한계를 이겨내는 용감한 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난민과 함께 캠페인

올림픽 이후에도 난민 대표팀의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출신 수영선수 유스라 마르디니(Yusra Mardini)와 남수단 출신 육상선수 이예크 푸어 비엘은 지난 9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난민과 함께(With Refugees) 캠페인 탄원서 전달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재정착한 다른 난민들과 함께 전달식에 참석한 이들은 전 세계 난민들을 대표해 모든 난민 어린이들의 교육, 난민 가족의 안전한 삶, 모든 난민의 일자리 또는 기술 교육의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전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난민 대표팀 선수 10명과 패럴림픽 참가 선수 2명을 비롯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전진하는 모든 난민들의 용감한 도전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① 800m 육상에 출전한 남수단 출신 난민 이예크 푸어 비엘
© UNHCR / Benjamin Loyseau

② 시리아 내전으로 오른목 다리를 잃었지만 수영선수로서 용기있는 도전은 보여준 이브라힘은 패럴림픽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선수에게 수여하는 팔연대 성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UNHCR / Benjamin Loyseau

③ 모델 양혜 복, 배우 변 스틸러 등과 함께 유엔 본부에서 열린 난민과 함께 캠페인 후원서 전달식에 참여한 이예크 푸어 비엘과 유스라 머르다니 © UNHCR / Slaven Vasic

“이번 올림픽은 저뿐만 아니라
난민 대표팀 선수 10명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800m 육상 선수 이예크 푸어 비엘(Yiech Pur Biel)

한국대표부 소식

#난민과 함께 서명 캠페인

세계 난민의 날 시작된 #난민과 함께(WithRefugees) 글로벌 서명 캠페인에 1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국 후원자들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서명은 9월 1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제출돼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 모든 난민 어린이가 교육을 받도록 보장
- 모든 난민 가족이 안전하게 살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
- 모든 난민이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

특히,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난민과 이주민 보호를 위한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난민과 함께 캠페인 전달식에는 시리아 난민 아이 아일란 쿠르디를 위한 헌정 공연과 캠페인에 동참한 유엔난민기구 서포터 벤 스틸러(Ben Stiller)와 캠페인 감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엔난민기구 전선대사 케이트 블란체트(Cate Blanchett)와 그녀의 동료 배우들과 함께 난독한 제니퍼 토크스비(Jennifer Toksvig)의 시 '피난길에 가져온 것들(What They Took With Them)' 영상도 상영되었습니다.



*'피난길에 가져온 것들' 영상 보기

난민 출신 저널리스트 한국대표부 방문

시리아 난민 출신으로 소웨덴에 정착해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누어 사이드(Nour Saeed) 씨가 지난 8월 한국대표부를 찾았습니다. 2013년 8월 고향인 시리아 라타키아(Latakia) 마을에서 벌어진 대학살에서 살아남아 해상으로 피난해 유럽 땅에 재정착하기까지의 과정, 저널리스트로서 시리아 유물 일일출판자와 위조 여권 브로커 등을 취재한 경험 등 난민으로서 겪은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켈리 클레멘츠 부고등판무관 방한

유엔난민기구 켈리 클레멘츠(Kelly Clements) 부고등판무관이 지난 7월 4일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켈리 부고등판무관은 외교부, 법무부, 코이카 등 주요 국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의 전 세계 난민 이슈, 유엔난민기구의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고, 9월에 개최되는 유엔 총회 및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재 정상회담 관련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했으며, 국내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를 표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2016 세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 공동 개최

지난 8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세계식량계획(WFP),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등 17개 단체와 함께 세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 되는 인류애(One Humanity)'를 주제로 세계 분쟁 및 재난 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캠페인 참여 단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부스, 포토존, 메시지 보드 등의 오프라인 행사와 8월 한 달 동안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해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자타리 난민촌의 모습을 담은 가상현실(VR) 체험 및 #난민과 함께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란 거주 아프간 난민 소녀를 지원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9월 5일, 이란의 유엔난민기구 사무소에서 새로 작성한 양해서를 서명함으로써 이란 아슬랑 공화국 거주 아프간 난민 지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외교부가 '이란 거주 아프간 난민 소녀들의 보호와 인도적 원조' 프로젝트를 위해 전달한 미화 6백만 달러의 자발적 기탁금은 난민 소녀들의 건강 증진, 자립성 배양, 교육 및 지속 가능한 생계 수단으로의 최선의 접근성 제공 등을 목적으로 보편적 공공 건강보험 계획 지원, 의료시설 운영 보조, 학교 설립 혹은 수리, 언어 강좌 개설 지원, 위생 키트 제공 및 배분, 가내 사업 설립을 위한 비즈니스 교육, 공식 직업교육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현될 예정입니다.



종이없는 연말 정산

2016년에도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후원비용을 절감하여 보다 많은 난민을 지원하고자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후원관리팀 02-773-7272)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등록해주시면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주민등록번호 등록 여부 확인 방법



정우성 친선대사 일일 대면 모금 활동가 참여

지난 8월 3일, 정우성 친선대사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사무소 앞 대면 모금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유엔난민기구 대면 모금 활동가를 자처하며 팔인들에게 전 세계 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후원 참여를 독려했으며, 더운 날씨에 활동하고 있는 대면 모금 활동가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6월부터 진행된 #난민과 함께(With Refugees) 캠페인을 홍보하며,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지드래곤 29세 생일맞이 깜짝 기부

지난 8월 18일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29세 생일을 맞아 내전 및 폭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8,18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내전 및 폭격사태로 난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기부가 "보다 많은 사람이 난민에 대한 관심과 후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 지드래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축을 통해 유엔에 기부하는 방안을 타진했으며, 반기문 총장의 조언을 고려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로이터 사진전 후원자 초청 도슨트 프로그램

한국대표부는 지난 9월 24일 후원자들을 초청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로이터 사진전: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스페셜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로이터 클래식, 이모션, 유니크, 지구 여행, 리얼리티, 스포트라이트 6개관의 주요 작품을 통해 다양한 세상의 모습과 삶의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특히 리얼리티 관에서는 전 세계 분쟁 지역 난민의 모습을 다루면서 난민 이슈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후원자 가족,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 오정은 큐레이터를 비롯한 로이터 사진전 관계자, 한국대표부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후원자 Q&A

후원자분들께서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하시는 궁금한 사항들을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더 많은
Q&A
바라가기



Q1. 내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후원자님께서 매일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전액 난민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이 후원금이 사용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등록하고, 실터, 물, 위생 시설, 영양, 보건 서비스, 교육 지원도 합니다.

후원금이 사용되는 국가는 전 세계 120여 개국입니다. 많은 난민 위기의 발생으로, 전체 보호대상자 가운데 57%가 아프리카와 중동에 있으며, 2015년도 전체 지출의 68%도 이 지역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곳,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 세계
수요 조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후원자들
후원금 모금

후원금 전액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전달

사전 계획 또는
긴급구조 대응 상황
에 따라 전액 난민을
위해서 사용

Q2.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하나요?

네, 유엔난민기구는 대면 모금 캠페인(Face-to-Face)을 통해 대중을 대상으로 유엔난민기구의 임무와 활동을 소개하고, 정기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캠페이너들은 유엔난민기구를 상징하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와 지하철 역내에서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난민존의 사진과 배너, 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기구의 활동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면 모금 캠페인 진행 시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정보를 받거나 현금 후원을 직접 받고 있지 않으며, 모금함을 설치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정기 후원 신청서에 후원자님의 기본 신상 정보와 후원금 납부를 위한 계좌 정보를 수기로 직접 작성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긴급구호

First in, Last out

72시간 내 최대 60만 명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춘 긴급구호 전문 UN 기구인 유엔난민기구는 긴급구호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도움이 필요한 지역으로 달려가 생명을 구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철리나 줄리
영상 보기

6년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최근 모술(Mosul)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많은 난민이 발생한 이라크,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한 나이지리아, 난민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남수단, 정치적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룬디, 쿠르드 사태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난민이 해상으로 유입되고 있는 유럽까지.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분쟁과 폭력에 맞서, 최근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특사인 안철리나 줄리, 그룹 U2의 리드보컬인 보노가 요르단과 나이지리아를 각각 방문해 난민보호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엔난민기구 주요 긴급구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난민 수	올해 자중에 전년 30만 명 중 3,200명이 사망 혹은 실종
모금 현황	필요 자금 3억8,031만 달러 중 54% 모금

시리아

지역 상황	6년이 넘는 내전으로 우리 시대 가장 큰 인도주의 위기 지역
난민 수	480만 명
국내실향민 수	870만 명
모금 현황	• 난민 지원: 필요 자금 12억8,613만 달러 중 58% 모금 • 국내실향민 지원: 필요 자금 3억2,941만 달러 중 33% 모금

이라크

지역 상황	최근 모술 지역에서의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로 지난 몇 개월간 수십만 명이 피난
난민 수	23만 명
국내실향민 수	335만 명
지원 현황	12만 명을 보호할 수 있는 6개의 난민촌 구축 진행 중
모금 현황	난민과 국내실향민 지원 필요 자금 5억8,400만 달러 중 41% 모금

남수단

지역 상황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2013년부터 정치 세력 간 분쟁, 군사적 충돌 발생
난민 수	100만 명 이상
국내실향민 수	161만 명
지원 현황	지난 9월, 100톤 이상의 긴급구호 물품 공수
모금 현황	난민과 국내실향민 지원 필요 자금 3억3,314만 달러 중 12% 모금

나이지리아

지역 상황	무장세력 보코하람의 북동부 지역 공격으로 최근 긴급구호 3단계 지역으로 지정
난민 수	16만 명
국내실향민 수	200만 명
모금 현황	난민과 국내실향민 지원 필요 자금 1억7,200만 달러 중 24% 모금

부룬디

지역 상황	정치적 불안과 폭력, 박해를 피해 파난길에 오른 난민 수가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
난민 수	30만 명
국내실향민 수	4만 명
모금 현황	난민과 국내실향민 지원 필요 자금 1억8,060만 달러 중 44% 모금

*모금 단위: 미화 달러

*통계 및 모금 현황 기준: 2015. 8. 9.

*기관간 공동 모금인 경우 유엔난민기구 필요 자금만 포함

NOBODY LEFT OUTSIDE

전 세계 난민에게
희망의 지붕을



재공관 영상보기

후원 약정서

후원 약정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문자(1666-5146)로 보내주시면, 기존 후원자를 비롯하여 누구든 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후원자 정보

이미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신가요?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에만 표시

성함 _____ 생년월일 _____

휴대전화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신규 후원자인 경우, 후원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후원자님 후원정보는 후원권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후원난민가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g)의 해당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정보

일시 후원의 경우, 아래 금액 1회만 출금 ☐ 예 ☐ 아니오 — '예'인 경우 기금선택, 후원금액에만 표시

은행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명 _____ 예금주 생년월일 _____

기금선택 ☐ 섀터 캠페인 ☐ 가장 필요한 곳에 ☐ 시리아 긴급구호 ☐ 전 세계 긴급구호 — 유럽, 이라크, 나이지리아, 남수단, 부룬디 등

- 후원금액 ☐ 100만 원이면, 요르단에 살고 있는 취약한 난민 가족이 한 분기를 지낼 수 있는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 50만 원이면, 레바논의 미완성 건물에 사는 난민 두 가족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단열 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 20만 원이면, 차드에 사는 난민 열 가족에게 벽이나 지붕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수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 10만 원이면, 난민 열 가족에게 임시 거처에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취침용 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 매월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 매월 1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 ☐ 기타(☐ 정기 ☐ 일시) _____ 원

이내들은 후원금 사용에 대해, 보내주시 후원금은 전 세계 난민을 위해 각 지역의 주요 및 부속 단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곳에 최선의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원금 소지자를 알려주세요.

*기존 후원자가 일시후원하는 경우, 본인이 정기후원금액에 해당 일시후원금이 1회만 더해져 출금되며, 해당 시기 본인의 정기후원금과 함께 도착하는 경우, 직월에 출금됩니다.

*출금일에 전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 출금된 경우, 당일 15일(12월 출금) 또는 익월 5일(2, 12월 출금) 1회에 한하여 출금됩니다.

*유엔난민기구 후원처는 개인적인 사업자, 호텔, 가맹점, 소액사업과 법인사업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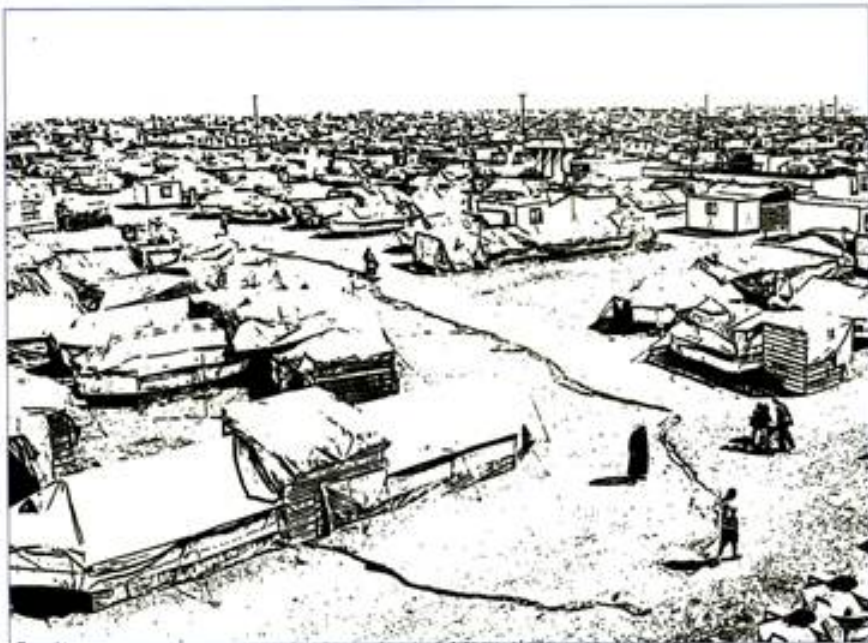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작은 보호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난민 쉼터



빈공간에 자유롭게 메시지와 그림을 그려 넣고 색칠하여 삭막한 난민촌 쉼터를 예쁘게 꾸며주세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만든 난민 쉼터를 사진 찍어 문자 (1666-5147)로 '2016 가을호/이름/우편을 받으실 주소(☞ 2016 가을호/홍길동/서울시 중구 무교로 6)'를 기재하여 10월 31일까지 보내주신 분 중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퀴즈에 참여해주신 많은 후원자분께 감사드립니다!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전화 02-773-7272 (가입후원 02-773-7075) 이메일 withyou@unhcr.or.kr

홈페이지 www.unhcr.or.kr

블로그 blog.naver.com/unhcr_korea 해피빈 happylog.naver.com/unhcr

페이스북 www.facebook.com/unhcr.korea

후원계좌 국민은행 407537-01-004288 (예금주: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

주소 (우)04523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율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 Print using soy ink — 유엔난민기구는 환경보호를 위해 콩기름 잉크를 사용합니다.